

■ 추석 닷새 앞둔 양동시장 르포

“천원이라도 싸게…” 고객 발길 북적

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40%나 저렴한 추석 제수용품 등 ‘착한 가격’이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가벼워진 서민들의 발길을 재래시장으로 되돌리고 있다. 특별세일에 문화행사 등 시장 상인회가 다양한 마케팅으로 불거리를 제공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추석은 5일 앞둔 27일 호남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광주 양동시장에는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좀더 찬 가격의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날 시장 한켠에는 상인회가 마련한 한가위 축제가 열려 상인들이 장기자랑으로 손님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또 참기름, 떡 등 제수용품 판매점과 옷가게 등 30여개 점포에서는 추석맞이 특별 세일을 마련, 10~20% 할인판매를 했다.

덕분에 손님들도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었다. 오가는 행인들 손에도 검정봉지가 2~3개씩은 들려 있는 등 모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았다.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강형자(58)씨는 “5~6년 전만 해도 요즘 때는 점심을 쟁쟁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 보다 손님들도 많이 오고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는 사람들을 두고 있다”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정육점 주인 김덕희(54)씨는 “한 우값이 많이 올라서인지 아직은 가격만 물어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추석은 5일 앞둔 27일 양동시장 어물전에서 한 시민이 굴비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양동시장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추석 장만을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 발길로 북적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떡·참기름 등 제수용품 10~20% 할인**‘희망근로 상품권’ 유통에 손님 20% 늘어****시장 상인회 앞장 다양한 불거리 제공도 한몫**

만 어차피 장만해야 할 것이니 명절이 다가올수록 사기는 사람들이 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나물가게에서 가격홍정을 하던 주부 유미현(45·광주시 북구 임동)

송정·남광주·대인시장 등 다른 재래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여전히 대목을 실감하지 못하겠단다.

“풀널도 있었지만 추석 대목에 대한

예 재래시장을 찾았다”며 “생각처럼 많이 싸지는 않지만 아쉬운 소리를 하면 조금 더 얹어주고 정감이 느껴져 마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음을 같다”고 말했다.

송정·남광주·대인시장 등 다른 재래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여전히 대목을 실감하지 못하겠단다.

/이은기자 emlee@kwangju.co.kr

기대감이 높았다.

송정시장에서 걷어붙 가게를 운영하는 황선호(60)씨는 “아직까지 ‘추석 대목’을 실감하기는 힘들지만 산불건을 찾기 위해 일부러 찾는 손님들이 많아 매출이 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동시장상인회 김영호 회장은 “온누리, 희망근로 상품권 등이 유통되면서 시장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님들이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 같다”며 “풀널이 우수한 상품을 마트나 백화점보다 4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추석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기자 emlee@kwangju.co.kr

aT는 또 자녀 교육, 맞벌이 등으로 명절 차례상을 조리된 음식을 구입해 차리거나 차례상을 통째로 주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 소요 비용도 조사했다.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경우는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서울 대치동의 한 상가 등 3곳을 조사한 결과 30만~3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사 준비할 때보다 두 배 가까운 돈이 드는 셈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T는 또 자녀 교육, 맞벌이 등으로 명절 차례상을 조리된 음식을 구입해 차리거나 차례상을 통째로 주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 소요 비용도 조사했다.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경우는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서울 대치동의 한 상가 등 3곳을 조사한 결과 30만~3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사 준비할 때보다 두 배 가까운 돈이 드는 셈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청소년·자영업자에 ‘맞춤요금’

장기가입자 혜택…데이터 요금도 인하**■ 이통요금 인하 효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27일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제 개선안은 세대별·계층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하안을 담고 있다. 소비자들이 통화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잘 선택하면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 등 소비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과제들은 수용하지 않아 알맹이 빠진 개선책이란 비난도 만만치 않다.

◇과금 단위 ‘1초’→‘1초’로 변경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금 방식의 변화다. SK텔레콤이 현재 10초당 18원씩 받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을 내년 1월부터는 1초당 1.8원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번에 13초를 통화하고도 20초의 요금을 물어야 했던 기준의 불합리한 요금구조가 개선돼 연간 2천10억원 가량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요금도 인하= 장기가입

으로 단순화해 월정액료만 내면 음성·문자·무선데이터를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 요금제는 월정액 1만5천~3만원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2만~7만5천원의 무료 금액이 제공돼 이 한도 내에서 음성이나 문자, 무선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KT는 청소년 요금제의 요율을 10초당 15원에서 10원으로 33% 인하하고 무료 문자 가능건수를 현행 550건에서 825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본료·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등 ‘알맹이’ 빠져= 하지만 이번에 방통위가 밝힌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는 그동안 4천 700만 가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편적인 기본요금의 폐지나 대폭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나 무료화 ▲이동통신 3사 모두 10초에서 1초로의 과금 단위 변경(이번엔 SKT만 시행) 등이 빠져 있어,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금 인하 조치가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국토해양부는 새규어·랜드로버 차

재규어·랜드로버 차**수입사서 자발 리콜**

국토해양부는 새규어·랜드로버 차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새규어와 랜드로버 승용차에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콜 차종은 새규어 3.0, 새규어 3.5, 새규어 4.2, 디스커버리 3 TDV6, 레인저로버 스포츠 TDV6 등 5종 총 835대로, 2003년 3월 25일~11월 17일 제작·판매된 새규어 승용차와 2006년 8월 16일~2009년 6월 24일 제작·판매된 랜드로버 승용차가 해당된다.

시는 가전로봇산업에 예산과 민자 가 차질없이 투자되면 2014년까지 가전로봇 전문기업 100개가 설립돼

총 생산 1조원과 수출 3억달러, 고용 창출 2천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올 3월 광주테크노파크를 주관 사업자로 선정해 추진하는 가전로봇산업과 관련 내년과 2011년 국비 149억원과 지방비 56억원, 민자 52억원 등 총 257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가전로봇산업에 예산과 민자 가 차질없이 투자되면 2014년까지

가전로봇 전문기업 100개가 설립돼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가전로봇산업

2년간 250억원 투자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전로봇산업에 앞으로 2년간 250억 원이 투자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올 3월 광주테크노파크를 주관 사업자로 선정해 추진하는 가전로봇산업과 관련 내년과 2011년 국비 149억원과 지방비 56억원, 민자 52억원 등 총 257억원을 투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4억원, 민자 1억원 등 25억원이 투자된 바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는 저가의 가전제품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전로봇 제품 생산에 박차를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가전로봇산업에 예산과 민자 가 차질없이 투자되면 2014년까지

가전로봇 전문기업 100개가 설립돼

총 생산 1조원과 수출 3억달러, 고용 창출 2천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올 3월 광주테크노파크를 주관 사업자로 선정해 추진하는 가전로봇산업과 관련 내년과 2011년 국비 149억원과 지방비 56억원, 민자 52억원 등 총 257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가전로봇산업에 예산과 민자 가 차질없이 투자되면 2014년까지

가전로봇 전문기업 100개가 설립돼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재래시장서 추석상 보면 17만2천원**대형마트보다 40% 더 싸다**

aT는 또 자녀 교육, 맞벌이 등으로 명절 차례상을 조리된 음식을 구입해 차리거나 차례상을 통째로 주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 소요 비용도 조사했다.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경우는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서울 대치동의 한 상가 등 3곳을 조사한 결과 30만~3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사 준비할 때보다 두 배 가까운 돈이 드는 셈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T는 또 자녀 교육, 맞벌이 등으로 명절 차례상을 조리된 음식을 구입해 차리거나 차례상을 통째로 주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 소요 비용도 조사했다.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경우는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서울 대치동의 한 상가 등 3곳을 조사한 결과 30만~3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사 준비할 때보다 두 배 가까운 돈이 드는 셈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35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2 8 14 25 29 45	2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157,185,26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6,912,917
3	5개 숫자 일치	1,374,330
4	4개 숫자 일치	56,761
5	3개 숫자 일치	5,000

파손복권

(제179회)

당첨번호	당첨금(원)
1	5억
2	1억
3	1천만
4	백만
5	50만
6	각종
7	1천

코스피지수

1,691.48 (-8.23)

코스닥지수

516.52 (-15.01)

금리 (국고채 3년)

4.43% (+0.06)

원·달러 환율

1,186.10원 (-21.70)

※수치는 25일 기준 1주전과 비교

대인동삼일부동산

호 (대)223-1140, 5210번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